

#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

##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

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| Tel (661) 871-9190 | 1305 Water St., Bakersfield, CA 93305  
Fax (661) 873-7286 | 홈페이지 [www.sanclementemission.org](http://www.sanclementemission.org) | 통권 제 29 권 12 호



주일 미사: 오전 8 시 (한국어, 영어), 오전 9 시 30 분(영어), 오전 11 시(스페인어)  
토요일 미사: 오후 6 시(스페인어)  
평일미사: 월, 화, 목요일에는 오후 6 시.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 
고백성사: 월, 화, 목요일 평일미사 전 (오후 5:30 ~ 5:50)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.  
성체조배: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 
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: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 
성당사무실 시간: 화요일 ~ 금요일(9:30AM ~ 6:00PM)  
한인 공동체 이메일: [sanclemente.kc@gmail.com](mailto:sanclemente.kc@gmail.com)

미 사 성 가	입당 (37)	봉헌 (215)	성체 (168)	파견 (68)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

제1독서 | 예레 17,5-8

화답송 | 시편 1,1-2.3.4와 6(◎ 40 [39], 57나)

- 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!
- 행복하여라!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,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,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,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,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. ◎
-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, 제때에 열매 맺고, 잎이 아니 시들어,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. ◎
-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,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.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,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. ◎

제2독서 | 1코린 15,12.16-20

복음환호송 | 루카 6,23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보라,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 ◎

복음 | 루카 6,17.20-26

### 성소를 위한 기도

- 좋으신 목자 예수님,  
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 
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.
- 비오니, 오늘도  
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 
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,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.
-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,  
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 
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
-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 
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 
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.
- 주님,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 
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.
-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 
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.
- ◎ 아멘.

◆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◆

날짜	미사해설	독서	복사
2/17	유 요한	이 바오로	박 다니엘
2/24	이 마틸다	이 요한	박 다니엘
3/3	이 그레이스	이 바오로	박 다니엘
3/10	이 마틸다	이 요한	박 다니엘

영어독서: 손 데레사

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: \$100

지난 주일	봉헌금	2 차 봉헌	교무금
	\$201	\$120	\$1,000

**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**

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, 오후: 3 시 입니다.  
공급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2/16	박 바오로/ 박 세라피나	3/23	유 요한/ 유 마리아
2/23	손 아놀드/ 손 쟈마	3/30	이 그레이스/ 김 마르타
3/2	이 글라라/ 장 글라라	4/6	홍 마르코/ 홍 아녜스
3/9	박 벨라렛다/ 정 루시아	4/13	김 요아킴/ 고 안나
3/16	이 요한/ 이 마틸다	4/20	김유스티노/김유스티나

**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**

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, 자매님들 그리고,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.

**말씀의 이삭**

**걱정**

-최재원 요셉 | 배우-

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. 살기는 편해졌는데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요즘 세상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. 모두가 힘들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하고 받는 돈의 대가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도 공감의 갑니다.

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도 우린 걱정에, 거기다 상상의 걱정까지도 하게 되지요.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.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훗날 생각해보면 벌써 추억이 되어 버렸거나 ‘그땐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했는지 몰라...’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.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 것 아니었는데 말입니다.

작년에 한 드라마에서 난생처음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근데 역할이 부장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역이라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다 한 산문집에서 읽은 이 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. 일본의 이큐라는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 승려들을 모아놓고 편지 한 통을 내놓으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

‘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편지를 열어보아라. 대신 작은 걱정거리로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.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열어보아라’

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모두 머

**공동체 소식**

**성체조배:**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
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

오는 성체조배는 3월 7일 입니다.

**한인공동체 임원회의:**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

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오는 임원회의는 3월 11일 입니다.

**공동체 기도성가 모임:** 매주 목요일 오후 7:30

성가와 말씀 나눔,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,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.

장소: 6351 Aker Rd. #7, Bakersfield. CA 93313

**성경공부:**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(셋째 주 제외)

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.

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**2019년도 미사 책값 안내 (\$50)**

올해 미사 책값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**

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리를 맞대고 조아렸으나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. 제자들은 마침내 이큐 스님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모두 모여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. 편지에 단 한마디가 적혀있었습니다.

“너무 걱정하지 마라. 어떻게든 된다.”(정호승, 「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」 중에서)

티베트 속담에 “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”라는 말이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만 잘 붙들고 있다면 꼭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.

피할 길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? 그렇다면 그 길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길일 겁니다. 그 또한 주님의 뜻일 거고

혹시 이 순간 ‘그럼 내가 그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나?’ 하고 또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건 바로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.

**복음묵상**

**행복 하여라**

**가난한 사람들**

**하느님의 나라가**

**너희의 것이다.**